



사찰도서관 개관 남양주 봉영사(주지 해만·왼쪽에서 두 번째)에 사찰도서관이 개관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효탄)와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 백천불교문화재단(이사장 조명하)은 7월 7일 '부처님길사랑, 남양주 봉영사 사찰도서관 불서기증식'을 봉행했다. 행사에서는 '부처님길사랑' 현판 및 백천불교문화재단이 기증한 1000여 권의 불서와 기증서가 전달됐다. 해만 스님은 "앞으로 봉영사 사찰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불자들이 지역주민들이 부담 없이 사찰도서관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며 "사찰도서관이 건립되기까지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은정 기자

# 스님들 산중장터 '승시' 가볼까

## 승시 재연 조직위 결성... 8월 27~29일 동화사 인근서 열려

대구 팔공산에 고려·조선시대 스님들의 산중장터인 승시(僧市)가 재현된다.

대구 불교계는 7월 6일 대구불교방송 문화센터에서 팔공산 승시 재연을 위한 조직위원회를 결성했다. 조직위원회는 이날 결성을 시작으로 8월 27~29일 동화사 집단시설지구 일원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팔공산 승시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조직위원장 허은 스님(대구불교방송 사장)은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전통 승시를 되살려 디지털 세상과 어울리게 재현할 적기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동화사를 비롯해 해인사, 송광사, 용주사 등 전국 20여 사

찰과 100여 불교단체가 참가한다. 행사에서는 전국 사찰에 전해지는 승시 관련 물품들이 한자리에 진열된다. 행사장에서는 승시마당을 비롯해 불교문화체험, 다도와 사찰음식 시연, 공연, 전시, 전래놀이 등 6개 마당별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승시마당에는 연밥요리, 발우제작, 죽염만들기, 가사승복제작 등을, 불교문화체험마당에는 목탁만들기, 선무도체험, 불교목판화, 불화그리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체험마당에서는 목어, 윤반, 밥고, 범종 등 사물을 제작하는 과정이 영상물 등을 통해 상세하게 소개된다. 다도와 사찰음식마당에서는 곤

드레밥과 메밀묵 만들기, 장아찌 담그기, 국화차 제조 및 시음, 차명상 체험 등이 선보이고 공연마당에는 사찰춤, 회심곡 등이 펼쳐진다. 전시와 전래놀이마당에서는 전통등과 전통다비장이 재현되고 굴렁쇠, 투호, 비석치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동화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조선왕조실록>과 정시헌(1625~1707)의 <산중일기> 등에 소개된 승시 관련 부분을 참고해 재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간에도 승시를 열어 외국인에게도 한국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려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손범천 대구지사장

# 100자 뉴스

## 통도사 조계종에 승가교육진흥기금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통도사가 재해 구호 등 종단 모금 사업에 항상 앞장서줘 고맙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통도사가 다른 곳은 모두 관심이 많은데 논산 육군훈련소 군법당 짓는데는 관심이 적은 것 같다. 군법당 건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섭 기자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는 7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승가교육진흥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통도사 부주지 현근 스님에게서 승가교육진흥기금을 전달 받은

## 불교문화연구원 '원전연구' 13집 원고 모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은 12월 31일 발간 예정인 <원전연구(原典研究)> 제13집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한다.

원고는 법어, 팔리어, 티베트어, 한문 등의 원전을 대상으로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분량을 제한하며 12월 10일까지 이메일(kimjinmoo@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원고는 <원전연구>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02)2260-8508 이나은 기자

## 한암사 14일 불지사리 친견법회 봉행

천안 한암사(주지 원철)는 7월 14일 불지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한다. 입재식은 100일 기도와 함께 제주 관음사 원종 스님을 초청해 법문과 <금강경>독송 등이 진행된다. 이어 9월 1일에는 천안 각원사 대원 스님을 초청해 50일기도 회향법회를, 10월 21일에는 부산 범어사 정어 스님을 초청해 100일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원철 스님은 "많은 경전에서 부처님 열반하신 후 사리들을 세워 모시고 공양 올릴 것을 권하고 있다"며 "사리를 친견하고 공양을 올림으로써 얻게 되는 복덕은 한량없다. 많은 분들이 이번 법회를 통해 뜻 깊은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041)592-4747 이은정 기자

## '불교평론' 열린논단 이시우 박사 특강

전문학을 통해 불교의 세계관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계간 <불교평론>편집인 홍사성(은)은 7월 15일 오후 6시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열린논단' 7월 모임을 개최한다. 이시우 박사(서울대 명예교수)가 '전문학자가 본 불교의 세계관'을 주제로 강연한다. 회비 1만원. (02)739-5781 조동섭 기자

## 대성사 베트남 끄엉사와 결혼 협정서 교환

태고종 육전 대성사(주지 해철)와 베트남 하노이 하이즈영 끄엉사(주지 팜 응옥 끄엉 스님)는 6월 29일 한국과 베트남 선남·선녀의 건전한 국제 결혼에 상호 협조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협정서를 교환했다.

이날 협정서 교환에 앞서 해철 스님은 한국에 딸을 시집보낸 베트남 가정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국 결혼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들었다. 또한 베트남 결혼풍습과 현지 커플매니저들에 의해 주선되는 선남선녀의 맞선 현장 등을 찾았다. (043)732-5560 해철 총칭지사장

## 석학장좌-변규백 작곡가

### "찬불가 전담 심의기구 있어야"

"불교종단에는 아직도 찬불가를 심의하는 기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불교의 음악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찬불가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이를 정리하는 전문 기구의 창설이 필요합니다." 찬불가계의 거장, 변규백 작곡가(67)는 7월 6일 서울 템플스테이 정보센터에서 열린 '불교문화정보연구원 석학강좌 시리즈-불교음악'에서 찬불가의 전통성을 적용을 강조하며 이를 심의하는 기구의 창설을 주장했다.

변 작곡가는 "찬불가의 선율은 자연스럽고, 소박하고 가사와 일치해야 한다"며 "다른 종교 교곡의 대표작을 보아도 음악적인 모국어에 바탕을 두지 않고서는 완성도와 예술미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변 작곡가는 이어 "현대 많은 찬불가들이 개신교의 찬송가 선율과 왜색 선율을 많이 차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한국불교의 멋과 미를 표현하는데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변 작곡가는 그 대안으로 "찬불가를 검토하는 심의위를 통해 현재 이웃종교 등의 풍이 혼재된 찬불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신교와 가톨릭, 성공회 등에서 찬송가 심의기구를 통해 곡의 구성과 작곡가의 신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공모 등에서 선별하는데 비해 불교계는 이웃종교 작곡가가 찬불가 작곡을 해 불교 선율의 미반영이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변 작곡가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후배 작곡가들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작곡가는 "찬불가 창작활동에서 불교계 작곡가들이 우선 불교교리에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불교수행을 닦고 있어야 한다"며 "완성도 높고 감동적인 찬불가를 위해서 경전을 바탕으로 한 가사 등을 도입하는 등 불교판의 색채를 드러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 작곡가는 "특히 가사는 선율보다 더 불자들의 신심에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심 고취란 찬불가의 주목적 상 매우 중요하다"며 "찬불가 창작에서 가사 내용은 작곡가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작곡가 스스로의 신생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 나누우리 라오스에 학교 건립

## 라오스 문교부와 지원협약 체결... 내년 준공



나누우리 이사장 월운 스님이 6월 30일~7월 6일 라오스를 방문해 라오스 푸앙프라방 교육청장과 학교건립 지원협약을 체결 후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자비나눔 실천도량 나누우리가 라오스에 학교 건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구호활동을 시작한다.

나누우리(이사장 월운)는 6월 30일~7월 6일 라오스를 방문해 라오스 문교부와 학교건립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나누우리는 라오스 문교부의 행정 지원 속에 라오스에 초등학교 건립을 할

수 있게 됐다.

나누우리는 10월 라오스 문교부와 학교 건립 예정지를 확정하고, 나누우리 창립 1주년에 즈음해 내년 3월 준공식을 봉행한다. 학교 건립 후에는 나누우리 봉사단이 매년 학교를 방문해 건물 보수 및 학업·의료 지원 등을 펼칠 예정이다. 협약 체결에 앞서 나누우리 대표

단은 비엔티엔 왓코아투앙사원의 승가대학을 방문해 학용품 전달했다.

또 고산족마을인 반 후아이히아 마을의 후아이 초등학교와 반라파이 마을의 흥이인 라파이 초등학교를 찾아 구호물품과 학용품을 전달했다. 후원문의 (02)734-7756 조동섭 기자

# 단식·참선 삼매체험 집중수련

5월/30일/50일/100일

## 상사에서 참선 단식 다이어트

금강단식 온단식 : 국민단식으로

무겁고 어두운 몸과 마음을 단식과 참선(화두)로 대전환 한다.

◆ 행복참선학교 : 토요일 10시 30분

**기적의 금강단식**  
단식참선의 획기적 효과

- 바로 굶고 바로 먹고, 요요현상 제로 -

- **다이어트 1일 최고 3kg** 고혈압 당뇨 체질개선 해독 피부미용 여드름·아토피 여성병(생리불순, 폐경, 생리연장)
- 금연, 금주, 위장, 대장, 소장 등 각종 질병 치료 및 예방 효과
- 통찰로 지혜의 극치에 도달, 운명 천성이 바뀜.
- 심신개벽, 자신감, 신병증대, 창의성, 능력개발, 성격개조
- 우울증, 신경쇠약, 정서안정, 공포불안, 대인관계 인내심, 집중력, 기억력
- **물만 마시고도 각종 난치병·성인병을 치료** 예방할 수 있는 기적의 금강단식으로 몸과 마음이 활기 회복
- **예비감식 보식 없음**

**청소년특별프로그램 "단비"**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과 사고력과 집중력**을 끌어올릴 **단기출가 선 수행 프로그램인 "단비"**를 운영한다.

<특징>

- ㄱ 청소년들에게 불필요한 힘의 소모를 없애고, 집중력이 강화되어 흐트러진 정신 상태를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 ㄴ 집중력이 성적으로 이어지는 태도 전환을 갖게 됩니다.
- ㄷ 사고력의 확장으로 정서, 자신감, 정신적 안정에 도달하며, 정신적 신체적인 확고한 토대를 이룹니다.
- ㄹ 참선을 통한 인생관을 확립합니다.

**단기출가 4박 5일 일정**

차수	날짜	대상	장소	회비
1차	7.17 ~ 7.27	청소년, 부 또는 모 동반(단비)	활인선원	신청회비 60만원 (정리금 20만원 저금, 10일전 신청완료, 10만원저금) *1차에 한하여 3일 전 적용
2차	7.23 ~ 7.27	청소년, 부 또는 모 동반(단비)	활인선원	
3차	7.20 ~ 8. 3	청소년, 대학생, 일반	활인선원	
4차	8. 6 ~ 8. 10	청소년, 대학생, 일반	활인선원	
5차	8. 12 ~ 8. 16	청소년, 대학생, 일반	제주 원명선원	
매일정기 1회 실시	9. 19 ~ 9. 23 10. 22 ~ 10. 26 11. 26 ~ 11. 30	청소년, 대학생, 일반 청소년, 대학생, 일반 청소년, 대학생, 일반	활인선원	

**30일 50일 100일 단기출가**

날짜	기간	날짜	기간
7. 17 ~ 8. 14	30일	11. 12 ~ 12. 11	30일
7. 17 ~ 9. 4	50일	11. 12 ~ 2011. 1. 1	50일
		11. 12 ~ 2011. 2. 26	100일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수행에서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자신을 끌어 올려 영원한 삶으로 바뀌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절유은 절유대로, 향운은 향운대로 값진 삶으로 인도해 줄 단기 참선출가로 인생의 대전환을 이룹니다.

문의신청 1644-5266

네이버카페 활인선원

참선전문도량 활인선원 院 (제주 원명선원) 안성맞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667-3번지